

문화

행복한 책읽기

까뜨리느 아틀레이의 '지푸라기 여자' (동서문학사 판)

육망은 삶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다. 자크 라캉은 '육망이론'에서 "사막을 걷는 나그네는 오아시스를 보고 지친 발걸음을 옮긴다."고 했다. 자크 라캉의 말처럼 육망은 사람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도 끝까지 생을 살게 하는 힘과 동기를 부여해준다. 사람의 삶은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얻으려고 하는 대상으로 해서 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육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부처로 살아가는 토양이며 원동력이라고 말이다. 때문에 불가에서는 "육망을 더 많이 부려라, 단 그 육망에 암이기는 말아라."하고 가르치고 있다.

탑육은 사람의 삶을 파괴하게 만든다. 몸과 영혼을 마비시키는 마약 같은 것이며 한 번 걸리면



지난 24일,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인터뷰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 'LOVE'였다. 피아노 앞에서 연주를 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아니스트였고, 손자들의 사진을 보여줄 때는 가장 자애로운 할아버지였다. 사랑스런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자랑을 멈추지 않을 때는 가장 따뜻한 남편이었다.



1954년 미국 설리번쇼 출연 모습

1960년대 이승만 대통령·프란체스카 여사와

1962년 백악관 공연 후 재클린 케네디와

연주할 때도 아내볼 때도 손자 앞에서도 'LOVE'

세계적 피아니스트 한동일·이혜련씨

50년 해외생활 마무리… 광주에 정착



광주에 정착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동일(71)씨와 역시 피아니스트인 아내 이혜련(53)씨의 보금자리인 광주시 남구 양립동의 45평 아파트는 꼭 갤러리처럼 꾸며졌다.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는 이 씨가 직접 그린 유화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고, 중국 도자기와 고가구, 프랑스 살 때 구입했다는 루이 15세 때 제작된 장식장과 의자가 눈길을 끌었다.

▲천재 피아니스트와 아버지.

한씨는 만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한씨는 피아니스트로 키우고 싶어했던 아버지는 때로는 매를 때려가며 피아노를 가르쳤다.

월남 후 피아노가 없어 이곳 저곳을 전전하다 미군 제 5공군 기지에서 피아노 연습장 기회를 얻은 그에게 꿈같은 일이 벌어진 게 1954년이었다. 그의 연주 모습을 본 사무엘 앤더슨 사령관이 스존서를 자임했고 군인 등이 모금해준 4500 달러를 들고 그에 첫발을 내딛었다.

같은해 CBSTV '에드 설리빈 쇼'에 출연한 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서 온 피아노 신동으로 소개됐고,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 후 전액 장학금을 받아 학교를 마쳤다. 이후 제24회 국제 리번트리콩쿠르에서 우승한 그는 시카고 심포니, 런던 필하모닉 등 유수의 오케스트리와 협연하고 37년간 미국에서 활동장을 가르쳤다.

그는 수많은 공연 중 2004년 연주회를 최고의 공연으로 평았다.

"연주 50주년을 기념한 공연이었죠. 서울시향에서 팀파니를 연주하기도 했던 아버지가 91세의 나이에 팀파니를 맡아 '황제'를 함께 연주하셨어요, 그 공연을 마치고 나서, 아 이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5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살아왔으니 이제 내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 최고의 파트너

아내와의 첫 만남은 지난 1978년이었다. 홍콩에서 연주회를 가졌던 한씨는 페이저 터너(연주자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가 급히 필요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아내다. 그로부터 10년 후, 한씨가 재직중이던 텍사스 주립 대학으로 이씨가 공부를 하러 오면서 두번째 만

광주에 정착한 피아니스트 한동일·이혜련 부부가 24일 아파트 연습실에서 슈베르트의 곡을 함께 연주하며 활하게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동에서 세계적 음악가까지… 3살 때부터 가르친 '아버지의 힘'

이야기도 나누고 연주도 하고 '피아노 토크' 같은 작은 무대 꿈

11월 1일 두오콘서트 기부 '슈베르트 멋진 음악 들려드릴까요'

남이 있었고,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2009년 세번째 만남을 갖게 된다. 순천에서 행사를 기획했던 그는 마침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이씨에게 참여를 부탁했고, 2010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한씨는 37년을 함께 산 프랑스인 아내와 지난 2009년 이혼했었다. '내 나라' 한국에 정착하고 싶었던 그에게 '프랑스인'임을 이야기하며 동행 할 뜻이 없음을 밝힌 그녀와의 사이에는 2남 1녀를 뒀고 이씨 역시 전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를 뒀다. 두 사람은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부부가 함께 연주하는 음악

광주피아노두오협회(회장 서영화) 초청으로 11월 1일 광주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한동일·이혜련 듀오 콘서트-슈베르트'에서는 '황상곡 F 단조 작품 103'; 소나타 C 장조 작품 104' 등을 들려준다.

완벽한 방음 시설을 갖춘 연습실에는 슈타인웨이 피아노와 암마하 피아노 두 대가 놓여 있었다. 음악회에서 연주할 곡을 정했다.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 '군대 행진곡'을 연주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보였다.

"하, 우리 부부가 슈베르트의 너무 아름다운 음악과 사랑에 빠져 버렸어요. 함께 연주하면 우리 소울이 합쳐지는 걸 느낍니다. 지금이 너무 행복한 게 한창 때는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처럼, 이 도시 저 도시 떠돌며 공연하느라 여유가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상태죠. 무슨 연주회를 위해 연습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번 공연 때 몇 시간만 저희에게 귀를 빌려 주세요. 멋진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음악회를 후원해준 광주일보와 팜플릿에 따뜻한 웰컴 인사를 써 준 광주시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광주에서 시작하는 삶

한 씨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한다. 광주에 동지를 틀게 된 것도 26년 전 첫 만남을 가졌던 이들이 계기가 됐다. 그 때 연주회를 마치고 신양파크호텔에서 묵고 있던 그를 찾아온 사람이 정은순·김선자 전 전남대 교수였다. 두 사람은 좋은 공연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이 인연으로 한씨는 광주 학생들을 여러 차례 가르쳤다.

이씨는 "호신대에서 행사가 있어 양립동을 찾을 기회가 있었는데 꼭 이곳에 살고 싶었고, 운 좋겠어 꿈을 이루었다"며 웃었다.

최근 차를 구입한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광주 근교로 여행을 떠난다. 영광 굽비 백반, 나주 곰탕 등 먹거리를 즐기고, 풍암저수지를 함께 산책하는 시간은 정말 행복하다.

한씨의 일정은 여전히 바쁘다. 11월에는 대구 시향과 협연무대가 잡혀있고, 부조니 콤부르 심사위원, 일본 엘리자베스 대학 강의 등 해외 스케줄도 빼곡하다.

"제 인생은 얼마 전까지 비바체(Vivace·아주 빠르게)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단테(Andante·느리게)죠. 가끔 알레그레토(Alegreto·조금 빠르게)가 되기도 하지만요. 음악을 소화하는 데도 여유가 생겼죠. 제 음악을 들을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피아노 컨버세이션', '피아노 토크' 같은 것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가 연주도 들려드리고 험 즐거울 것 같아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즐겁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껴요. 그 선생님의 제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인터뷰를 마치자 "이 사진은 꼭 보고 가야 한다"며 두 사람은 부지런히 각자의 노트북을 뒤지기 시작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며 아내 이씨가 보여준 사진은 한씨의 외손녀들 모습이었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봉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예림동 훌풀러스 견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www.geumsuojang.com